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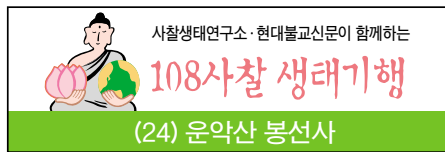
봉선사의 전각들.



봉선사천은 생태계의 소중한 생명줄이다.



전나무 군락을 지나노라면 자연스럽게 사색이 빠지게 된다.



# 5백살 느티나무가 일주문



수련과 노랑어리연꽃, 창포 꽃창포 개구리밥 등이 어우러진 봉선사 앞 연못.

매미가 울기 시작할 때 운악산 봉선사로 떠났다. 사람들은 운악산 하면 현등사가 있는 가평 운악산(雲岳山)을 먼저 떠올린다. 두 산은 엄연히 다른 산이지만, 한 줄기로 멀리 이어져 있다. 현등사가 앉은 가평 운악산(936m) 줄기가 남하하면서 주금산(813m)-죽엽산(610m)-수리봉(536m)을 세운 것이다. 봉선사가 앉은 운악산은 죽엽산과 수리봉 중간에서 자리하고 있다.

고려 광종 때 법인 국사 탄문(法印國師 桓文)이 이곳에 처음 절을 창건하고 '운악사'라 했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 산 이름도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으리라 짐작된다.

퇴계원과 장현을 지나 능내 삼거리에 이르면 봉선사천이 왕숙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광릉수목원 덕분에 다행히 자연 하천의 모습을 유지해온 봉선사천. 봉선사천은 이 지역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기회요소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소중한 생명줄이다. 아직도 인적 드문 곳으로 가뉘 물총새와 원앙이 새끼를 치고 멧돼지와 고라니가 목을 축이러 내려온다.

그러나 근래 들어 봉선사천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 1급수였던 수질이 최근 4지점 조사에서 평균 BOD가 4ppm으로 나왔다. 특히 식당촌 아래는 3급수(6ppm 이하)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발을 물에 담글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악화된 것은 몇 년 사이 상류에 위탁업소들이 하수를 함부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지난 봄 위쪽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봉선사 진입로에는 딱딱나무 신갈나무 양버즘나무 전나무 등등의 키 큰 나무들이 줄을 짓고 있지만

원편에 큰 주차장이 생기면서 생태 경관이 예전보다 크게 나빠졌다.

봉선사 주차장은 아스콘 주차장이다. 공사가 간편하고 돈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이 짧은 이유로 대부분의 사찰처럼 손쉽게 아스콘을 덮었다. 주차장을 보다 생태적으로 만들 순 없을까 하는 고민은 봉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에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주차장 위로 근래 조성한 연못들이 연이어 있다. 연꽃 수련 어리연꽃 창포 꽃창포 부들 가래 개구리밥 등등의 수생식물들이 자란다. 연꽃은 아직 멀었지만 수련과 어리연꽃이 때맞추어 만발했다.

수련은 꽃잎이 밤에 접어드는 습성이 있어 '잠자는 연꽃(睡蓮)'이라고 한다. 흰 꽃만 토종일 뿐 나머지는 모두 외래개량종이다. 어리연꽃은 노란 꽃이 피기 때문에 노랑어리연꽃이라고도 한다. 수염 모양을 한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 번식하며 그 뿌리에서 가느다란 줄기가 나와서 물 속에서 비스듬히 자란다. 연못 주위로 노랑어리연꽃이 밀집자리 왕잠자리 실잠자리 등 몇 종류의 잠자리들도 관찰된다.

연못에는 여러 마리의 붉은귀거북이 물위로 올라와 동동 떠다닌다. 이따금 물에서 올라와 등짝을 말리지 않으면 등짝에 이끼가 달라붙는다. 붉은귀거북

은 미국에서 건너와 우리의 고유한 생태계에 말쑥을 일으키고 다니는 녀석이다.

연못들을 둘러보며 느낀 아쉬운 점은 연못 주변에 나무가 없다는 점이다. 연못가에 수변림(水邊林)을 조성해 놓으면, 수은 상층을 억제하여 물의 부영양화를 더디게 하고 곤충이나 물고기의 먹이를 풍부하게 하고 산란과 은신처를 제공한다.

수변림으로 알맞은 나무로는 버드나무 수양버나무 낙우송 메타세쿼이아 개나리 수수꽃다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는 '양류관음(楊柳觀音)'이라 하여 절집의 연못에 잘 어울리는 수종이다.

봉선사는 문이 없는 절이다. 5백년 된 느티나무가 일주문 기능을 대신한다. 설립전 앞 울터 주변에는 키 큰 달피나무(염주나무)를 비롯해 은행나무 수양버나무 등나무 일본목련 등이 있다. 가을이면 신도들이 달피나무 열매를 주위 염주를 만들어 판다.

봉선사의 대웅전 편액은 '큰법당'이다. 운허스님의 불교대중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현판이다. 큰 법당 주변으로 여러 그루의 밤나무가 때맞추어 꽃을 피웠다.

큰법당 뒤로 돌아가면 화계(花階)가 있다. 다듬은 장대석을 이용해 쌓은 화계는 궁궐에서나 볼 수 있

을 뿐 절집에서는 보기 드물다. 봉선사는 왕의 원찰이었던 만큼 전각들이 궁궐이나 양반주택을 많이 닮아 있다.

화계는 글자 그대로 꽃으로 장식한 계단이다. 봉선사는 대대로 교종사찰이었기 때문에 선찰에 비교해서 조경이 좀 화려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화계는 외래 원예종인 연산홍 일색이다. 자연성을 살려서 우리 야생화들을 심어 꽃 공양을 하면 좋을 것이다.

봉선사는 앞산과 뒷산이 모두 광릉수목원과 접해 있어서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탄실하다. 광릉수목원-광릉-봉선사를 잇는 일대의 숲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천연학술보존지역이다.

봉선사 앞산은 광릉수목원 경내다. 세줄나무 한 마리가 철망에 붙어 오수(午鰐)를 즐기고 있다. 세줄나무는 초여름에 나타나는 네발나무의 한 종류이다. 검정색 날개에 흰 띠무늬가 세 줄 나있다.

절망 안으로 건장한 전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숲

사이로 흐르는 개울에는 씨알이 작은 버들치들이 한가로이 노닐고 대낮인데도 가재들이 기어 다닌다.

봉선사 뒤 숲은 비교적 층위구조가 탄실한 편이다. 입상에는 애기나리 노루발풀 꿀풀 여름싸리 동굴레 고사리 평의다리 족도리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야고목으로 당단풍 산초나무 생강나무 개울나무 등이 있으며, 교목으로는 잣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소나무와 전나무가 어우러져 자란다.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이 숲길은 등산로라기보다 사색을 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이다. 이 숲길을 걸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풀과 나무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경행하듯이 깊고 그윽하게 걸을 일이다. 봉선사 사부대중이 이 숲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이 숲은 분명 봉선사의 큰 복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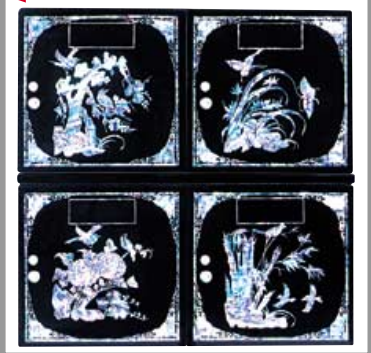
## 3급수로 전락한 봉선사천, 야생동물 생태계 위협 화계(花階)·전각 등 교종 사찰 면모 곳곳에 간직 광릉수목원-광릉-봉선사 잇는 천연 학술보존지역



꽃으로 장식한 계단이란 의미를 가진 봉선사 화계(花階).

### 남골장 나전칠기(사군자) 공법으로 제작한 고급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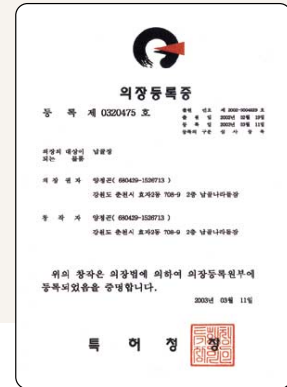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 장엄한 전동나전칠기공법으로 남골장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골장의 미려함과 습기, 결로현상의 완전 제거 기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칠기 남골 위패

### 전국 사찰, 법당안에 남골당 설치 정당 (합헌 결정)

지장보살전, 명부전, 기존 건축물 ... 남골당 설치 가능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남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했다 하더라도 사찰법당 내부에 남골당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주지 임연규)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남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남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남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집회장인 사찰에 남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남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이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남골당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매장 중심의 장애물화를 화강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2001년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이듬해 1월 4일 법당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남골함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남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조건에 위반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나전칠기 남골장 특허등록



남골장, 남골모 제작 시공 전문업체  
나전칠기 남골함, 위패 제작판매  
(의장등록증 발급)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52번지  
남골나라 돌잠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남골장 전시관 상시운영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